

교육철학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은 1895년 2월 발표된 ‘교육입국조서’의 일부이다. 여기서 강조된 내용과 교육적 의의를 설명하시오. (15점)

아!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고 독립하여 웅시(雄視)하는 여러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의 지식이 개명(開明)하고 지식이 개명함은 교육이 잘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짐이 임금과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있다. 교육에는 또한 그 방도가 있으니, 허명(虛名)과 실용(實用)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어 고인(古人)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큰 형국에 어두운 자는 문장(文章)이 고금(古今)보다 뛰어나더라도 쓸모가 전혀 없는 서생(書生)이다. 이제 짐은 교육하는 강령(綱領)을 제시하여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높인다. 덕양(德養)은 오륜(五倫)의 행실을 닦아 풍속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지 말며, 풍속과 교화를 세워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 시킬 것이다. 체양(體養)은 동작에는 일정함이 있어서 부지런함을 위주로 하고 안일을 탐내지 말며 고난을 피하지 말아서 너의 근육을 튼튼히 하며 너의 뼈를 건장하게 하여 병이 없이 건장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지양(智養)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서 지식을 지극히 하고 도리를 궁리 하는 데서 본성을 다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며 옳고 그르며 길고 짧은 데 대하여 나와 너의 구별을 두지 말고 상세히 연구하고 널리 통달하여 한 개인의 사욕을 꾀하지 말며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라.

제 2 문. 프랑스 교육사상가인 루소(Rousseau)는 그의 저서 『Emile』의 첫 문장에서 “조물주가 처음에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선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닿으면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에는 루소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특유의 ‘인간관’과 ‘소극적 교육’이 암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루소가 주장하고 있는 ‘인간관’과 ‘소극적 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15점)

제 3 문. 다음 인용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당신은 이제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에 대해 편애를 하는 나머지, 문자가 참으로 가지고 올 결과와는 반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당신은 그 발명품이 지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지혜의 ‘실제’가 아닌 ‘외양’만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 발명품 때문에, 사람들은 배움이 없이도 여러 가지를 주워들게 되고, 실지로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가장 곤란한 상대가 될 것입니다.

— Plato, 『Phaidros』 중에서 —

○ ‘사고의 형식’ 내지 ‘사물을 보는 틀’에는 어느 것이나 반드시 그 자체의 사정 기준이 있다. 그 사고의 형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신이 없을 때, 사고의 형식이란 거의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현신이나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외적인 지식만 가진 사람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 R. S. Peters, 『Ethics and Education』 중에서 —

- 1) 위의 두 인용문은 지식교육의 난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 2) 그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